

사회

말썽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 설명회’ 진실 공방

주민들 “외지 사람들 불러 놓고 설명회”

업체측 “정상적으로 3차례 열렸다”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사전 주민설명회를 놓고 주민대책위원회와 업체 간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하지만 업체는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업체 대표는 “양과동 일대 주민들 중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반대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주민도 상당수 있다”면서 “설명회에 주민이 아닌 외부인을 동원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행조·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양과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짓고 있는 A업체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총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특히 업체 대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전남 광주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다소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업체 대표는 “환경청과 남구청이 행정적인 검토를 마쳐 사업이 진행중인데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책위는 모든 주민설명회가 양과동 일대 주민이 아닌 신원을 알 수 없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설명회를 실시

한편 강은태 광주시장은 전남 양과동 대책위 등이 참석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환경·도시·교통분야 시민대토론회’에서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 남구청 등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특공대 캠프’ 학생들이 함성

20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체험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이 훈련 중 함성을 지르고 있다. 총 39명이 참가한 이번 체험캠프는 오는 22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음독 강진군청 공무원 사망

郡, 사망자 판매한 청자축제 입장권 사용중지

티켓 취급 업소와 미찰일 듯

지난 19일 청자축제 입장권 판매대금 2억5000여만원의 정산 요구에 고민해오다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광주일보 7월 20일 6면) 강진군청 공무원 최모(44·8급) 씨가 같은날 밤 11시께 치료를 받고 있던 조선대병원에서 사망했다.

는 입장권 사용규정에 의해 숨진 최씨가 판매한 입장권은 사용중지키로 했다. 그러나 최씨로부터 입장권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업소 등이 현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군과의 미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는 최씨가 반야간 2억5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대금 채권확보를 위해 최씨의 퇴직금 등에 대한 압류를 검토 중이다

한편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동부취재본부=남철희 chou@

헤어진 애인 만났던 녹차밭 오려다...

필로폰 맞고 강원도~보성 운전 40대 구속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장거리 운전까지 한 40대가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집을 나간 애인을 찾아다니다 처음 만났던 보성 차밭에 오려다 강원도에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경찰은 20일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이모(44·강원 춘천시)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팔각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에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모 펜션 인근 팔각정에서 생수에 희석시킨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0.3g씩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필로폰 판매액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회삿돈 120억원 빼돌린

선박블록업체 대표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도 중공업 대표 A(43)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1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 자금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선박블록 제조업체를 설립, 12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 공장을 지은 뒤 신축 3개월 만에 215억원을 받고 해당 공장을 대기업에 매각해 95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기고 수익금 등 회사 자금도 12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도의원 딸 가짜 경력 취득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원장 자살로 드러나

“강력한 인사 청탁” 유서 사실로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현직 도의원의 딸이 가짜 경력증명을 이용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본인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채용 과정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남도가 공개채용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현직 도의원의 딸인 A씨는 진흥원 개원 당시인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 절차를 밟아 입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DJ센터 경영본부 기획관리팀에서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무전담직(7급)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기소개서가 제출됐다.

전남도는 20일 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 A씨의 채용 과정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의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경력증명서는 DJ센터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와 매우 흡사하지만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서류 오른쪽 상단에 찍는 발급용 도장 날인이 없는 데다, 사장 직인도 DJ센터의 것과 다르고 발급 담당자 직원 도장도 다른 부를 확인한 결과, “DJ센터에 근무

전남도는 20일 무면허로 약을 조제, 난치병 환자에게 판매한 조모(52)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난치병 환자 장모(여·48)씨에게 고혈압 약을 분말형태로 만든 뒤 치료약인 것처럼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 알선 1500만원 챙긴

광주 일간지 기자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수)로 광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 A(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5)씨에게 자신이 출입하는 구청의 구청장을 잘 안다면서 B씨의 딸(24)이 구청 가능 직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의 딸은 A씨의 말을 듣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10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난치병 환자에 허위 약 판매

50대 구속영장 신청

광주남부경찰은 20일 무면허로 약을 조제, 난치병 환자에게 판매한 조모(52)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난치병 환자 장모(여·48)씨에게 고혈압 약을 분말형태로 만든 뒤 치료약인 것처럼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362) 김종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검찰, 소환 조사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불법후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석웅(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20일 정당에 불법 정치자금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장 위원장을 불러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교사 신분으로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장 위원장은 “교사·공무원의 소액 후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 취지를 내리고 있음에도 검찰이 소액 후원을 빌미로 교사와 공무원 1800여명을 전원 기소하려 한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건설 장비 기름 빼 자기 차에 사용

○보성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운전한 건설 장비에서 유류를 빼내 자신의 차량에 사용한 혐의(절도)로 이모(57·경남 거제시)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도로 공사용 건설기계(폼팩트도라) 운전기사인 이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30분께 보성군 벌교읍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폼팩트도라에 호스를 연결, 경유 100ℓ를 빼내 자신의 차량에 넣는 등 전남과 경남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7차례에 걸쳐 경유 300ℓ를 훔친 혐의.

○경찰은 최근 관내 비닐하우스와 건설 현장에서 유류 도난 피해가 잇따르자 야간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기름을 훔치고 있던 이씨를 발견, 현장에서 체포.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8월 1일